

“아픈 역사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만든 결과물”

광주시청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도한 ‘작사모’ 전경훈 대표

“광주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다고 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소녀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 원을 모금하는 것부터 장소를 찾는 것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소녀상 취지에 공감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광주시청에 세워지는 소녀상은 개인이 만든 성과가 아닙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려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결과물이 바로 광주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대학생 전경훈(23)씨는 올해 광복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6개월 넘게 준비한 ‘평화의 소녀상’이 드디어 광주시청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1층 ‘시민의 숲’ 안 녹지공간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린다. 소녀상 건립을 준비하는 광주지역 청년봉사활동 단체 ‘착한 사람들의 모임’(대표 전경훈·이하 작사모)은 그동안 많은 시민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5·18 민주광장에 세우려고 했다. 그

러나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민주광장에 동상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작사모는 지난 1월부터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후원을 통해 소녀상 건립비용을 모금했다. 이와 함께 일본 대사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윤성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사모 회원들은 SNS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취지를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를 본 서울대 대학원생 엄중섭 씨와 조각가 안경진 씨가 먼저 연락해서 재능기부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도움이 손길이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시민 최원준 씨는 소녀상 건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왔다. 김승주·최구민 씨는 소녀상 제막식 때 사용할 홍보 동영상 제작을 맡았다. 김용훈·김윤민 씨는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모금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거들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가로 300cm, 세로 150cm, 높이 160cm(좌대 포함) 크기의 평화의 소녀상이 탄생했다. 소녀상은 한복을

건립비용 모금·조각 재능기부

6개월 넘게 준비해 내일 제막식

5·18민주광장에 못세워 아쉬움

입은 소녀가 오른손을 앞으로 내민 모습이 다. 의자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기존 평화의 소녀상과는 다르다. 이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평화의 소녀상 형태를 결정했다.

그동안 소녀상 건립을 위해 SNS에 글을 쓰고, 시청과 구청 등 여러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대학 휴학생이지만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며 고민했던 전 씨는 오는 9월 후련한 마음으로 복학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녀상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속앓이도 많았다. 원래 세우고자 했던 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 터를 잡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쉽다고 속내를 전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 더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다. 고생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는데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좋아서 한다”는 짧은 답을 건넸다.

소녀상 건립 프로젝트 마무리를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도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겐 끊임 없이 봉사하는 사진이 올라온다.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사회는 그분들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복지비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살아온 경험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도 많아요. 지난 5월부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서전 형태로 출판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작사모 소식을 들은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제의했는데 취지가 좋아 동참하게 됐어요. 2학기에는 복학해서 더 바빠지겠지만 올해 안으로 꼭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어르신들을 만날 계획이에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라이온스클럽 광주 355-B1 노인들에 삼계탕



국제라이온스클럽 광주 355-B1 5지역 회원들은 말복인 12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2000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삼계탕을 대접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곡성기차마을 휴게소 어르신에 콩물국수 대접



곡성기차마을(천안)휴게소는 12일 당양읍 중육리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냉콩물국수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곡성기차마을(천안) 휴게소 제공>



“우리 아빠가 만든 차 자랑스러워요”

기아차, 가족 초청 생산라인 견학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공장장 김진수)은 12일 ‘우리 아빠 최고’ 행사를 열고, 기아차 직원 가족을 공장으로 초청해 생산라인 견학을 시켰다.

직원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38가구·115명의 직원가족들이 참여했으며 가족들은 ‘울 뉴 쏘울’과 ‘스포티지R’이 함께 생산되는 라인을 둘러봤다. 라인 견학 이후에는 ‘아빠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통해 가족간 애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임동률기자exian@

심폐소생술로 타인 구한 박용민·김세훈 ‘하트 세이버’ 선정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심폐소생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박용민(26), 김세훈(22)씨 등 도민 2명을 ‘하트 세이버’(심정지 환자 구조 인증)로 선정했다.

박씨는 지난 4월14일 여수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이 정지된 아버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부친의 생명을 구했다.

나주 중흥골드레이크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 6월 26일 골프 라운딩 도중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해 고객의 생명을 건



박청웅 전남소방본부장이 박용민(왼쪽)·김세훈(오른쪽)씨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와 골드 배지를 전달하고 있다.

졌다.

전남소방본부는 18k 1등으로 제작한 하트 세이버 골드 배지를 이들에게 수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조치훈 9단 부인상

교코 여사 회장암 별세

바둑계 전설 조치훈(59) 9단이 부인상을 당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치훈 9단의 부인 교코(고교) 여사는 지난 7일 오후 10시 일본 지바현에 있는 자택에서 회장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조치훈 9단은 21세이던 1977년 여섯 살 연



상인 고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조치훈 9단은 부인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지난 10일 가까운 친척끼리 가족장을 치렀다. 부의금 등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례를 모두 치른 다음날인 11일에야 조치훈 9단은 일본기원에 이 사실을 통지했다. 한국기원은 일본기원을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승연·손옥희씨 아들 정육군 방현철·윤서영씨 딸 소연양=15일(토) 낮 12시 수원시 권선구 KNT웨딩컨벤션.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수맥, 나경/입향론, 비결록명당, 장법요강등이론과 현상 영상강의(책자무료 제공) 8월 29일(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904호 문의 010-3609-8117.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북구청 앞 튜브정형외과 병원 옆) 주최 풍수지리학 공개강좌=9월 7일 오후 7시 윤갑원 이사장 무료강연, 교재무료. 문의 062-511-2488.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병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

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부음

▲정명현(전 조선대 약대학장)씨 별세태일(현대중공업 부장)·은경(현대소아과 원장)·수경씨 부친상 설인숙(약사)씨 시부상 김평남(김평남내과 원장)·김은철(법무법인 평화 변호사)씨 장인상=발인 14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송주형씨 별세 민섭·창섭·명희·은희·향숙·숙향씨 부친상=발인 14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喪家 故人的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송윤자 님 (여/71세) 子/子婦: 김만중/송기옥, 남중/이경자 女/婿: 김선희/오병철 夫君: 김선철 •발 인: 8월 13일 •장 지: 화순 동복 선영 •연락처: 227-4381	401호 故전철준 님 (여/97세) 子/子婦: 최재호/방연애, 진환/김미소, 정환/윤연미 女/婿: 최복순/고재의, 경자/김동하 孫: 최기용, 봉준, 고용석, 용선, 민석, 현석, 김성용, 권우 •발 인: 8월 13일 •장 지: 화순 남면 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신인순 님(남/69세) 子/子婦: 신상옥/이세아, 상현 女/婿: 신수현/오원용, 승현 未亡人: 강정숙 •발 인: 8월 13일 •장 지: 내남동선영 •연락처: 227-4314	101호 故박동철 님 (남/61세) 子/子婦: 박지훈/이명진, 지현, 지철/정미숙 女/婿: 박은정/김민철 未亡人: 김숙희 •발 인: 8월 14일 •장 지: 담양 천주교 묘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정현 님 (남/69세) 子/子婦: 김석호/이정화, 석진/김정순 女/婿: 김석희/정월기, 석미 未亡人: 민영화 •발 인: 8월 13일 •장 지: 화순을 선영 •연락처: 227-4385	

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음 6월 29일 辛酉)

子 48년생 잠시 기우뚱하던 배가 반동으로 바로 서는 양태이다. 60년생 마지막 고배이니 최선을 다하고 보아야겠다. 72년생 삼사 일인 한다면 면책할 수 있을 것이다. 84년생 명이나 영일이 있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9, 52	午 42년생 실속을 찾아야 한다. 54년생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니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66년생 소기의 성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판시세에 놓인다. 78년생 할 일이 쌓여 있으니 꼭두새벽부터 서둘러야겠다. 행운의 숫자 : 65, 71
丑 49년생 함묵적인 발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판시세라 할 수 있다. 61년생 마주치면서 소리가 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한테 모아서 합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85년생 실행을 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2, 91	未 43년생 오늘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차질을 빚게 된다. 55년생 순조로운 진행이 계속 될 것이니라. 67년생 상당한 저항이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감안하라. 79년생 긍정적인 반응이나 희소식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42
寅 38년생 종대 고비를 넘기는 분수령이 되리라. 50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62년생 활동한다면 획기적인 생산 효과가 있다. 74년생 단처럼 잘 잡아낸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86년생 기대했던 바가 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6	申 44년생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판국을 좌우하겠다. 5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68년생 드디어 차선책을 택할 때가 되었다. 80년생 아차 하면 당하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6, 34
卯 39년생 구비 요건부터 갖춰 놓고 불일이다. 51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자. 63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75년생 오래된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형상이다. 87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1, 20	酉 45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7년생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형태로 정립되는 판세이다. 69년생 별다른 성과가 없다. 81년생 세월을 두고 누적되어 온 현상이 반전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5, 88
辰 40년생 서두르던 실수하는 법이니 차근차근 행하자. 52년생 양호한 여건을 조성해 하는 이로움이 보인다. 64년생 가장 특실하게 보였던 것이 제일 허탈 것이다. 76년생 이면에 가려져 있는 주변에 관심을 가질 때다. 행운의 숫자 : 48, 58	戌 46년생 듣기에 좋아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정황이다. 58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70년생 똑 같이 인식 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82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0, 95
巳 41년생 여러 방향을 골고루 살펴 보아야만 중요한 것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53년생 그 대로 뇌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65년생 허심탄화한 토로가 물꼬를 트게 하리라. 77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행운의 숫자 : 07, 63	亥 47년생 핵심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9년생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진면목을 보게 되리라. 71년생 삼가는 마음으로 임하면 감전하리라. 83년생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90,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